

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

전북교육청, 청렴 콘텐츠 공모전...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공동체와 함께 청렴한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전북교육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청렴 가치의 생활화와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실천으로 완성하는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주제로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청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일상 속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참가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보다 폭넓은 참

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으로 청렴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쇼트폼 영상 N행시, 이모티콘 포스터 등 총 4개 분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생활 속 청렴 실천 사례를 비롯해 신뢰받는 전북교육 실현 메시지, 긍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희망적인 이야기 등을 창의적이고 재치 있는 콘텐츠로 제작해 응모하면 된다.

작품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전북교육청 누리집 내 심사관-청렴하나로-청렴콘텐츠공모전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분야별 전문가 심사와

중복·표절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4일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분야별 5편씩 총 20편이 선정된다.

선정된 작품은 향후 전북교육청의 청렴 홍보와 교육 자료로 활용되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이번 공모전이 교육공동체 모두가 청렴의 가치를 다시 되새기고 생활 속 실천을 다짐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참여 대상을 확대한 만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품이 많이 접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무주·진안·장수교육지원청이 공동 주최한 2026 무주·진안·장수 함께하는 진로·진학박람회 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무주 반딧불체육관 일원에서 열렸다. (사진=무주교육지원청 제공)

무주·진안·장수 첫 통합 진로·진학박람회 성료

동부권 3개 군 교육지원청
교육 자원 통합 첫 행사 마련
동부권 교육공동체 축제로

전북 동부권 3개 군이 처음으로 힘을 모아 개최한 통합 진로·진학박람회가 4,500여 명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진안·장수교육지원청이 공동 주최한 2026 무주·진안·장수 함께하는 진로·진학박람회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무주 반딧불체육관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부권 3개 군 교육지원청이 교육 자원을 통합해 처음으로 마련한 공동 행사로,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등 4,500여 명이 참여하며 동부권 최대 규모의 교육공동체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개막식은 무주·진안·장수 학생의회 의장들이 공동 사회를 맡아 학생 중심 박람회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장에는 지난해보다 확대된 107개의 체험·상담 부스가 운영돼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진로체험존(A존)에서는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학교 동아리, 농촌유학 학부모 연합 등이 참여한 교육공동체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진학상담존(B존)에서는 전북대입지원단과 주요 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해 1대1 맞춤형 대입 상담을 진행했으며, 지역 고등학교들도 학교별 교육과정과 특색을 소개하며 진학 정보를 제공했다.

미래교육체험존(C존)은 로보마스터 체험과 시 머그컵 만들기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마을교육체험존(D존)에서는 장수 레드푸드 체험과 테라리움 만들기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생태·생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박람회 기간 무주에체문화관에서 EBS 대표 강사인 윤윤규, 정유빈 강사가 참여한 진로·진학 특강도 열려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 대응하는 학습 전략과 진학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중앙무대에서는 장수 산서 윈드 오케스트라, 군산부설초 푸른소리 중창단, 진안여중 댄스팀 등 3개 군 학생들이 공연을 펼치며 끼와 재능을 선보여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번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이강 교육장은 "3개 군이 처음으로 힘을 모아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상과 깊이 있는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무주·진안·장수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농산어촌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교조 전북 "부당 전보 제도화 멈춰라"

완산학원 정관 개정 추진 규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완산학원 임시이사회가 정관 개정 추진을 강행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이행과 박교사의 원직 복귀를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완산학원 임시이사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전보 처분 취소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채 법인 내 전보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 전보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완산학원이 지난 2월 단행한 박교사 전보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전교조는 당시 전보 결정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부결했으며 학교장의 정식 제청도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임시이사회가 전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과 적법절차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완산학원 임시이사회가 소청 결정 이후 박교사를 원직 복귀시키기보다 정관 개정을 통해 법인 내 전보 조항을 신설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교조는 정관 개정안에 포함된 '긴급 전보' 조항이 이사장 중심의 인사권을 강화해 교원인사위원회 심

의와 학교장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특정 교사에 대한 보복성 인사나 자의적 전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다수 교직원이 공식 의견서를 통해 법인 내 전보 조항 신설과 이사장 정수 축소 등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며 임시이사회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임시이사회는 비리 청산과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기구임에도 오히려 새로운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며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정관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감독과 개입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위법성을 인정해 취소한 전보 처분과 유사한 내용을 정관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청은 위법·부당 소지가 있는 정관 개정안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박교사의 즉각적인 원직 복귀 △법인 내 전보 관련 정관 개정 중단 △교육공동체와의 민주적 협의 추진 △전북교육청의 정관 개정안 불승인 및 임시이사회 운영 점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은 완산학원 임시이사회가 추진 중인 정관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전교조 전북지부의 입

장을 담고 있으며, 관련 사안에 대한 학교법인 측의 공식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공·사립 유치원장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사립유치원장의 정책 이해도와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전북교육청은 15일 전주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도내 공·사립유치원장 135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전북 유아교육 정책의 신규 및 중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적용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치원 관리자들의 정서 회복과 마음 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오전 사립유치원장 과정과 오후 공립·단설유치원장 과정으로 나눠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유아교육 주요 정책과 현안 안내, 신규·중점사업 추진 방향 공유, 유치원 현안 협의 및 질의응답, 감정 조향 체험 중심의 정서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방과후 과정 특색사업과 특색활동,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유아교육 분야 주요 정책과 현장 지원 방향을 집중적으로 안내하며 정책 추진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오상근 기자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

전북교육청, '북적북적 토론 도서 함께 읽기' 이벤트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독서토론 문화 확산과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적북적 토론 도서 함께 읽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20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독서토론행사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 도민들의 독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북적북적 토론 도서 함께 읽기'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접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일상 속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벤트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되며,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독서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2026 독서토론행사 지정 토론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읽은 뒤 책 표지 인증 사진과 함께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나 마음에 남은 구절을 온라인 설문폼에 제출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독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응모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총 20명에게 음료와 케이크 세트 모바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오는 7월 22일 전북교육청 카카오톡을 통해 발표된다.

임영근 문예체전강과장은 "이번 이벤트가 학교 현장의 지속적인 독서 활동과 책 읽는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독서·토론 문화를 확대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독서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문 독서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